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제 유명무실”

도의회 행자위, 성과평가제도 정책세미나 개최 전문가 “특별자치도 체감도·평가 내실화 부족”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체제이자 중앙부처의 권한 이양 및 재정·행정적 지원의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제도'가 십수년째 내실화되지 않으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제도(이하 특별자치도 성과평가제도)의 내실화를 모색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책세미나엔 강황선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김용은 건국대 융합인재학과

교수,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석환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이도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강재병 제주일보 정치부장, 최유균 국무조정실 과장 등이 참석했다.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특별자치도 성과평가제도는 제주도에 이양된 각종 권한과 규제 완화 등 특례 조치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각종 재정·행정적 지원의 근거가 되는 제도적 장치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 체감도가 낮은 데다, 현행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십

수년째 이어지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5월 제주도가 실시한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도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인지도 48.1% 수준, 제주특별법 개정 논의에 대한 관심도는 54.3%, 특별자치도의 경제발전 기여도는 46.4%, 자치역량수준에 대해 낮다고 평가한 도민은 50.1%로 나타났다.

발제자로 나선 강황선 교수는 “특별자치도 성과평가가 시행된 이후 작성된 보고서를 토대로 중앙정부에 의해 지적된 문제점, 요구사항 등을 이듬해 정책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환류’ 과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지난 십수년간 평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용은 교수는 “평가 결과를 피평가 기관인 제주도가 수용하고 반영하지 않는 평가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며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환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감시 수단과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기 교수는 성과평가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반영되기 위해선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활용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 ▷특례활용에 따른 파급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개선 ▷타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제도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 개발 ▷평가결과에 대해 중앙부처와 환류할 수 있는 지표로 개발할 것 등을 제시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오른쪽)와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가 11일 오전 광주 북구 윤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례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 올라

유승민·윤석열·홍준표 진출

원희룡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4강에 올라 본 경선에 진출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오전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2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 원 전 지사를 포함해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 선관위 방침에 따라 후보들의 득표 순위는 공개하지는 않았다.

본경선을 향한 2차 컷오프는 이들 4인을 포함해 황교안, 하태경, 안상

수, 최재형 후보 등 총 8명이 경쟁했다. 윤석열, 홍준표 2강과 3위권 유승민 후보의 진출이 확실시된 가운데 4위로 본선을 진출하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두고 관심이 모아졌다.

국민의힘은 11월 4일까지 마지막 본경선을 진행, 최종 후보를 5일 결정할 예정이다. 본경선에서는 7차례 권역별 순회 토론회와 3차례 일대일 맞수토론이 진행된다. 권역별 순회 토론회는 11일 광주·전북·전남에서 시작돼 13일 제주, 18일 부산·울산·경남, 20일 대구·경북, 25일 대전·세종·충북·충남, 27일 강원, 31일 서울·인천·경기 순으로 진행된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도의원 증원 공감... 도민 공감대는 부족”

제주도의회·제주도 주최 선거구획정 정책 토론회

내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적용하기 위한 선거구 조정 방안 논의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도의원 정수 확대를 내용으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도민 대다수가 도의원 정수 확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도는 지난 8일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의원 선거구 획정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지난 8일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 바탕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공론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사진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의 '제주특별법 개정방향' 주제 특강에 이어 김남수 제주한라대학교 교수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안' 주제 발표,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에서 패널들은 대체로 도의원 수를 늘리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도의원 증원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교육의원 폐지·조정 관련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양영일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은 “도의원 정수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0.1%가 ‘현 정원이 적당하다’, 38.1%는 ‘현 정원이 많다’고 답했다”며 “주민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도의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공론화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영일 협의회장은 “(교육의원) 출마 자격이 제한되다 보니 지역적

제주 전역 드론비행 ‘순항’ 11월 중 통합운영센터 출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9일 제주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내 첫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앞으로 12월까지 해안선을 비롯한 한라산 등 제주 전역에서 드론 비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드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드론 관제 플랫폼과 폐쇄회로(CC)TV-드론 영상을 연계한 안전 플랫폼을 구축, 11월 중 제주드론통합운영센터(가칭)를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드론 상용화를 위해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및 자치경찰단,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해양산업과, 안전정책과 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해 드론 영상이 필요한 지역을 촬영하고 기관이 요구한 기능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도는 9월 29~30일 제주 드론 특구 내 특별비행승인(항공안전법 제129조 제5항), 안전성인증(항공안전법 제124조) 등 특례를 적용해 제주시 무수천주유소에서 광령리 게이 트볼장까지 약 10kg의 물건을 싣고 1.5km 거리를 9회 왕복비행했다.

특히 30일에는 작년 뉴에어마루 거리에서 실증했던 스마트 드론 안심 서비스를 올레1코스에 적용, CCTV 사각지대 해소 및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비행승인 규제 특례를 적용받고 비행을 개시했다. 고대모기자

경선 끝났지만... 사퇴 후보 표 처리 ‘논란’ 이낙연 측, 당에 대선 후보 결정 건 의의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마무리된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20대 대선 후보로 확정했지만 무효 표 처리 방식이 논란을 빚으면서 결선 투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경선을 2위로 마무리한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의 캠프 소속 의원단은 11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 대선 후보 결정 건에 대한 의의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당규에 대한 지도부 판단에 착오가 있다”면서 “잘못된 무효표 처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 특별당규 제59조 1항에는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돼 있다”

며 당이 당헌당규를 오독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이고,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투표”라며 “정세균 후보 사퇴일 이전에 정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와 김두관 후보 사퇴일 이전에 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한 투표이므로 당연히 유효 투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경선에서 후보 사퇴로 인한 무효표는 김두관 후보가 사퇴한 이후에 제주와 부울경에서 얻은 257표만 해당된다. 따라서 10일 선관위의 발표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부미현기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자 환영

전기기능사취득(필기+실기)과정(주말반)

교육기간 2021.11.06~2022.01.22(22일, 132시간)
교육시간 15:00~22:00(저녁시간 포함, 야간 6교시)
대상 실업자·재직자·일반
교육내용 전기기능사 필기+실기 자격증 대비

전기설비 직무능력 향상 과정(주간반)

교육기간 2021.10.11~2021.12.17(2.5개월, 150시간)
교육시간 14:00~17:00(평일 주간, 일일 3교시)
대상 실업자·재직자·일반(취기산업직종 종사자 포함)
교육내용 전기설비 이론, 전기설비 이론 및 실습(산업 기사 수준)

커피 바리스타 과정

대상 실업자·재직자·일반
교육기간 상시 모집 중
교육시간 오전, 오후, 야간 매일 3시간씩
교육내용 자격증 취득 및 창업 관련

컴퓨터(OA관련, 전산회계 1급, 2급) 과정

대상 실업자·재직자·일반
교육기간 상시 모집 중
교육시간 오전, 오후, 야간 매일 3시간씩
교육내용 OA관련(사무자동화, ITQ, 컴활2급), 전산회계 1급, 2급

2021년 제1회 전기기능사실기 9명 응시 9명 합격(100%)
문*민, 한*남, 강*열, 김*현, 옥*환, 이*성, 정*환, 최*영, 최*혜(총9명)

제주직업전문학교

제주시 서사로 81 (삼도1동) 중앙여중 정류장, 진명대 맞은편(064)725-5545 <http://www.jejuvs.co.kr>

Silver Smile

노인학대신고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www.sgpnoin.org

운영법인 :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수확의동반자 “과일망태”

더 이상 허리숙여 수확하지 마세요!

작물 수확하는 수확용 가방 ‘과일망태’
허리 피로가 크게 감소, 작업능률 대폭 상승
두툼한 등·어깨 패드로 오래 작업해도 편안함
사과, 감, 귤, 대추, 키위 등 과일/옥수수, 피망, 파프리카, 가지 등 갖가지 채소 수확에도 편리함

과일망태 착용 전 vs 과일망태 착용 후

처진 가지 들어 올릴때, 안파고 드는 “안파고”

안파고 드는 유인줄 “안파고”

과일망태 착용 전 vs 과일망태 착용 후

사과, 복숭아, 자두 등 다양한 나무 견인 작업에 탁월한 효과, 사다리에서도 편리하고 오래 작업해도 손이 아프지 않음. 초간편 원터치&쉬운 길이 조절. 가지에 걸고 고정만에 끼우면 작업됨.

- 안파고 110호 (흰색 고리 × 1m)
- 안파고 115호 (흰색 고리 × 1.5m)
- 안파고 210호 (검은 고리 × 1m)
- 안파고 215호 (검은 고리 × 1.5m)

까치·까마귀·새 쫓을 때!~ **다인독수리연**

4m 폴대 세트 (대형연, 소형연)
7m 폴대 세트 (대형연)

질긴 천, 강한 부품, 비슷해도 다르다!

과수 유인줄, 유인줄, 이빨릴 기타 영농자재

상담 및 문의 ☎

다인산업 054-652-3725

경북 예천군 부용면 신당리 14-29(총부리 609)

홈페이지 www.dainfine.com

의료 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6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양신협(신속) 2층 동구치과의원

제주대 제주중양서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양신협 2층)

☎ 756-2833